

## 동화 심사평\*

윤기현

공모에 응모된 편수가 너무 적었다. 총 12편의 작품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그런데 대다수의 작품이 구성단계에 있거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해 내는데 문장력이 따라주지 않는 작품이 많았다. 거기다 5.18 단체에서 작품을 모집한다는 것을 너무 의식해 무리하게 5.18에 맞추다보니 기획 동화 같은 기교적인 측면만 들어내는 작품도 있었다. 그중에서 <12.천인국을 아시나요.> <7.나는야 한국어 선생님.>< 9.배낭아저씨와 용기 아저씨.><3.아빠의 선물> <8.할머니의 분홍 원피스.> 5편을 뽑아 심사를 했다.

<12. 천인국을 아시나요.> - 88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시골에 꽃길을 조성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루드베키아(천인국)을 심던 성민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건의 이야기다. 첫 장면은 민경이가 천인국을 꺾으려 하면서 새로운 선생이 오는 걸로 시작하는데 뒤로 가서 새로 온 선생님은 빠져버린다. 장편의 한 부분을 빼서 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곳곳에 묻는 것이 많아 아이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글쓰기는 훈련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런데 88올림픽을 위해 부역으로 끌려나와 꽃길을 조성하는 농민들이 마음이나 그 일을 하다가 죽은 성민이의 이야기. 그 사고로 미쳐 버린 성민이 어머니가 이 이야기에서 중심을 것 같은데 그건 빠지고 곁다리가 중심을 이루어버린 것 같아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천인국을 왜 끌고 왔는지? 상징으로 끌고 왔는지. 아니면 그냥 꽃길을 만드는데 정황을 이야기 하려는지? 제목이 갖는 상징성을 작품으로 끌어내지 못했다.

<7.나는야 한국어 선생님.> - 다문화 가정이야기다.

아버지는 한국사람. 어머니는 중국인 가정의 11살짜리 아들 왕신이가 복지관의 홈페이지에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뽑는다는 메일 광고를 보고 거기에 답신 메일을 보낸다. 그러면서 답신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사이에 화교 친구 안빈 안걸이와 놀거니 말을 주고받는 일상이 나온다.

복지관에서 아버지를 통해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복지관을 찾아간 왕신이는 장난하지 말라는 꾸지람만 들

고 쫓겨난다. 그 과정에서 담당 누나에게 행패를 부려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학교를 찾아 온 어머니를 통해 선생님이 알게 된다. 선생님은 왕신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복지관을 찾아가 보조교사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문화 가정 이야기 중에서 새로운 소재고 있음직한 이야기다. 또 가난한 집 아이들이 돈에 대한 집착도 수궁이 간다. 그런데 다문화 과정이 겪는 일상적인 차별과 어려움은 관과 되고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 그걸 이야기로 만들기에 급급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문학작품이 세상을 모사한다고 할 때 있는 그대로의 모사가 아니라 작가의 정신이 들어있는 모사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이 글을 왜 썼을까 하는 주제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9.배낭아저씨와 용기 아저씨.>- 도시 변두리 아파트에서 사는 민재가 친구 철기와 놀면서 겪은 이야기다. 민재가 지나다니는 놀이터에 낯선 아저씨 한분이 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 아저씨는 추석까지 정자에서 노숙으로 지내면서 사람을 찾고 있다. 이 아저씨의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다. 도시의 일상이 나오고 아파트 주민들이 아저씨를 몰아내려고 한다. 민재는 삼촌과 아저씨를 비교하면서 마지막으로 5.18을 이야기 한다.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데 인물하나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 이야기 해나가는 것이 지루하지 않게 한다.

동화로서 문장과 구성과 진행에서 무리가 따르지 않고 어느 수준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역사란 잘못을 저지른 쪽의 철저한 반성을 전제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둘 다 조금씩 잘못이 있다는 양비론적인 시각은 문제가 있다.

정치는 양비론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데 역사를 문학으로 다룰 때는 이런 관점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민재의 삼촌이 맞는 것과 낯선 아저씨가 공수부대 진압군이었는데 두 사람의 만남이 작가가 너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양비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는다.

세 작품은 이런 결함을 가지고 있어 제외하고 두 작품을 검토했다.

<3.아빠의 선물>- 1980년 신문사 사진 기자로 근무하다가 광주 사진을 찍고 해직을 당한 가정을 그린 이야기다. 아버지의 해직을 1983년을 시점으로 하여 초등학교 오학년 딸 진아를 화자로 해 써 나간다.

문장도 안정되고 구성이나 설정도 좋았다. 그런데 이야기를 진행하는 화자가 오학년이고 지금부터 25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기의 분위기를 끌어오지 못해 오늘 일어난 사건인지 오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지 아무렇게나 설정해도 그대로 맞게 되어있다.

83년의 분위기는 지하도 앞에 전경들이 지키고 있어 젊은 사람만 보면 검문을 하고 아가씨들의 핸드백을 열어보고 위협을 하던 풍경을 아무데서나 볼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끌어 왔으면 작품이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와 닿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여 기획 작품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버린다.

문학작품은 너무 만든 것 같으면 감동이 반감된다. 그런 부분만 보안한다면 손색없는 작품이 될 것 같다.

<8.할머니의 분홍 원피스.>- 여름 방학을 맞아 치매를 앓은 할머니 집에 갔다가 5.18때 딸을 잃은 할머니의 기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한빛의 이야기다.

할머니의 한약을 달이기 위해서 약탕기를 가지러 광으로 들어간 한빛은 광안에 있는 예날 살림살이에 관심을 갖는다. 거기서 예날 전등을 켜면서 불빛에 눈이 어두워지고 다시 빛을 찾으면서 판타지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할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5.18로 시간 여행을 한다. 상황설정이나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은 상당하다.

또 전등불빛이 켜질 때 한 순간 눈을 뜰 수 없는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력도 있다. 5.18의 이야기도 남광주에게 화순으로 나가는 너릿재 사건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도 역량이 있어 보인다. 판타지와 현실을 오가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 지루함도 덜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판타지로 들어가려면 뭔가 절실한 필연성을 필요로 한다. 한빛이가 판타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우연적으로 처리되어 극적인 긴장감과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이야기가 건들고 광주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장치들을 했구나 하는 의도성이 나타나 버린다. 이 부분을 보완하면 좋은 작품이 될 것 같다.

이런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안정되고 작가들의 역량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 앞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 두 작품을 가작으로 뽑기로 했다.

두 분에게 축하를 드리며 더욱 분발하여 큰 작가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